



목포해경 소속 특수기동대원을 태운 고속단정이 21일 오후 신안군 가거도 서쪽 영해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내달리고 있다. 하늘에는 목포해경 헬기가 중국 어선의 이동경로를 체크하며 순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포 목포해경 특수기동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완전무장 출동...순식간에 "꼼짝 마!"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10일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했다. 지난달 발생한 목포해경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 사망 사건 이후 날로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기동대원들은 현재 1천급 이상 함정에 배치돼 해상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 해상에서 근무중인 목포해경 소속 해상특수기동대를 찾아 이들의 사활을 건 불법조업 단속현장을 동행취재했다.

돌출 행동 대비 초긴장 속 나포

21일 오후 2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50km 해상. 목포해경 소속 1천500급 '1509함'(함장 정태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지 사흘째를 맞고 있었다. 시정거리 1.8km, 파고 1.5m로 해상 날씨는 비교적 좋았다. 갑자기 '빠~이이'라는 출동대기 신호가 떨어졌다. 전방 1.5km 해상에 중국 어선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함 내에 알람, 해경특수기동대 출동 준비"라는 당직관의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1509함'에는 해경특수기동대 1개 팀 10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전직 특전사·UDT·HID·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 연령 대도 30대 초중반으로 젊다. 5분 뒤 헬

멧과 방패, 삼단봉 등 진압장비를 차운한 특수기동대원 10명을 포함 해양경찰 14명이 갑판 위에 모였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다. 곧바로 3급 고속 단정 2척에 7명씩 나눠 탄 특수기동대원들은 중국 어선을 향해 내달렸다. 특수기동대 2팀장 한원산(40) 경사가 거친 물살을 가르며 중국 어선에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거친 파도는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재차 접근을 시도한 끝에 중국 어선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 10명의 중국 선원들은 특수기동대원들의 기세에 놀려 아무런 저항도 못했다. 특수기동대원들은 중국 어선의 조타실을 장악한 뒤 무전 채널을 국내 채널로 바꿨다. 이어 조업일지와 조

업허가증, 선제 설계도, 선원명단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다른 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뱃머리와 배 끝을 지켰다. 중국 선원 10명은 뱃머리쪽에 몰아세웠다. 풍역은 박주연(여·29) 순경이 맡았다. 한원산 팀장은 고속 단정에서 중국 어선의 동태를 살피며 대원들에게 무전 지시를 계속 내렸다. 한 팀장은 "중국 선원들이 돌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선체를 살핀다"고 말했다. 이 순간 중국 어선의 조타실을 장악한 신승용 경장이 "어업 허가증이 이상하다"라는 무전을 보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허가를 내 준 어업 허가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한 팀장이 "서류와 함께 중국 선장을 고속 단정으로 내려 보내라"고 지시했다. 중국인 선장과 선원 등 4명은 한 팀장이 운전하는 고속 단정을 타고 '1509함'으로 향했다. '1509함'으로 압송된 중국 선장 등은 공문서 위조와 불법 조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1509함' 정태인 함장은 "특수기동대를 창설한 것은 외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이곳에서 국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영해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화순 택시 납치·강도

30대 용의자 붙잡아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에 탄 뒤 여성 운전사를 납치한 강도 용의자가 검거됐다. 화순경찰청은 21일 "어제 발생한 택시 납치·강도 사건의 용의자 이모(37·화순군)씨를 붙잡아 범행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이씨가 숨은 화순군 능주면 한 야산에서 1km가량 떨어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순군 능주면에서 택시의 운전사 김모(여·59)씨를 흉기로 위협해 김씨를 트렁크에 태워 납치하고서 현금 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비상 손잡이로 트렁크 문을 열고 탈출했다. /최권일기자 cki@

年 807% '살인 이자'

서민 1천여명 올린 악덕 사채업자 3명 적발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최고 8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1일 영세 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주모(34)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충남 천안 지역에서 영세 상인 등 1천747명을 상대로 29억300여만원의 사채를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연 49%)을 초

과한 연 120~807%의 이자를 받아 모두 9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인 점을 이용해 목돈을 빌려준 뒤 30~100일간 소액 자금을 일수 형식으로 되돌려받는 영업 방식을 이용했으며, 특히 첫 대출을 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3~9%를 공제하고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정하고서 상가를 돌며 '법정이율에 맞춰 돈을 빌려 주겠다'는 내용이 적힌 불법 광고 전단을 돌려 영세 상인 등을 끌어오곤 했다. /최권일기자 cki@

나원침 (7633) 김장동



광주경찰 "일단 잡고 보자"

긴급체포 남발...10명 중 3명 풀려나

광주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민주당) 의원은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개칭 이후 수사 및 형사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개칭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광주청의 긴급체포 건수는 모두 911건으로, 이중 25.75%인 235명이 불구속 입건 또는 무혐의로 석방됐다. 여기에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건수를 포함하면 303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33.26%나 돼 전국 평균(32.66%)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긴급체포된 10명 중 3명이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광주경찰의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의 수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긴급체포 남용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영장신청을 통해 체포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민 절반 "경찰 불신"

광주지방경찰청이 개칭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광주시민 10명 중 5명 가량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벌인 설문조사 결과 광주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8.7%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고 답한 시민은 51.3%에 불과했다.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45.3%, 서울은 4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의 경찰 불신 정도는 27.4%로 제주 26.7%, 전북 25.3% 등과 함께 20%대에 그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또한, '경찰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잘한다'고 답한 반면, 37.8%가 '잘 못한다'고 답변해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 '밤에 혼자 걸기가 무서운 곳이 동네 주변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0.5%가 '있다'고 답해 여전히 밤길 치안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48.6%, 남성의 32.2%가 이같이 응답해 성별에 따라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62%, 20대 이하 여성의 57.4%가 주변에 무서운 곳이 있다고 답해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a phone number 02-3445-0943 and a website URL.

부부싸움 핏김 남의 차부쉬

부부싸움 한 뒤 핏김이 집앞에 주차된 차를 부순 30대 남성이 행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청은 21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M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P(34)씨 소유 승용차를 부순 이모(32)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0분께 자신의 집앞 도로에 세워진 P씨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지붕과 옆면을 찢고 찢리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집밖으로 뛰쳐나왔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못이기고 주차된 차량에 화풀이를 했다"며 "죄송할 따름이다"고 선처를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wasun Musikgaeyang Hospital,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hospital building and text in Korean.

Advertisement for a foot care produc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foot and text in Korean.